

## 학업흥미도 향상을 위한 패션전공교육 프로그램<sup>+</sup>

김 효 은

계명문화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 The education program majored in fashion for improving interest in schoolwork

Kim, Hyo-Eun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eimyung College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questionnaires to 323 undergraduate students in fashion related departments.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to ask total 23 questions including possibility of halfway dropouts, establishment of goals, self-improvement, entrance motives, satisfaction ratings of academic subjects, job prospects and path planning, amelioration of ways to instruct, desires for the integrated lessons and intense academic courses, wishes of field project education carrying out tasks, desired lecturers, and others. Results in this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To begin with, it was appeared that respondents with possibility of halfway dropouts showed considerable percentage (25.4%) and the reasons left out were various including joining the army, the poor economic conditions in family, a major not corresponding with one's aptitude. Secondly, in the extent of establishing goals and improving oneself, there was the difference between people with possibility of halfway dropouts and people without that, and it was judged that the extent of establishing goals and improving oneself as good parameters could explain halfway omission. Thirdly, the ways to teach for getting classes interesting were to make instruction according to one's capabilities, to progress systematically, and to take lessons with specific goals. Fourth, many respondents answered to want the integrated lessons, intense academic courses, and field project education carrying out tasks. Fifth, an overwhelming majority of respondents hoped instructors with a outstanding ability in business.

---

<sup>+</sup>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계명문화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For improvement of the ways to instruct and the role of professors, it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students are given intelligible lessons focused on fundamental subjects fitted to their levels and also need gradual intense academic courses classified by their way directions and interests. Second, creative and individualized teaching methods depending on the majors and levels are developed to help students have strong interest in schoolwork. Third, professors are constantly to learn practical techniques and skills related to industries in step with the education goals of college. Fourth, it is desirable to adopt instructors with practical business talents rather than theoretical capabilities.

**Key Words** : Halfway dropouts (중도탈락), Establishment of goals (목표설정), Self-improvement (자기개발), Amelioration of ways to instruct (수업방법개선), Integrated lessons and intense academic courses (통합식 수업과 전공심화학습), Field project education carrying out tasks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

## 1. 서론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우리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있다.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가족해체, 공교육 기능의 약화 등으로 청소년들이 실로 엄청난 갈등과 혼돈 속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은 각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적절한 진로지도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sup>1)</sup>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치열한 신입생 확보경쟁 뿐만 아니라 학생의 중도탈락 문제까지 겹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교수의 자질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최고로 높여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패션관련 학과와 학생 수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예체능계열 패션관련 학과 학생의 2008년과 2009년도 중도탈락률'은 대상 대학별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는 4년제 대학보다는 다소 높은 휴학생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더 느껴야 한다.<sup>3)</sup>

대학과 전문대학에서의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sup>4)5)</sup> 예를

들어 김수연<sup>6)</sup>은 '2년제와 4년제 재학생을 중심으로 학업을 마친 학생과 중도에 휴학과 중퇴를 경험한 학생이 학업지속과 휴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학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반적인 연구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션관련 학과의 학생 중도탈락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학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패션관련 학과에서의 중도탈락을 하려는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 학과교육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희망하는 교육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은 물리적 서비스의 개선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교육의 실질적 대상자인 학생이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대학은 고객인 학생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생 위주보다 교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고객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장이 존재하기 어렵듯이 학생에 대한 이해 없이 교육의 장인 학교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을 이

해하기 위한 조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에 앞서 현재 학생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교수방법개선 및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효율적인 현장맞춤 프로그램 개발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일시적인 휴학을 방지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패션전문인을 양성하는데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 II. 연구배경

### 1. 대학의 진학진단 현황

#### 1) 대학 환경의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와 경제사정의 침체로 인하여 모든 대학에서는 신입생 유치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문제로 심각한 실정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의 학생현황의 변동은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휴학생 비율을 보면 4년제 대학은 31%내외로 큰 변동이 없으나, 전문대학은 1999년 33.1%에서 2004년에는 38.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지금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35%내외로 4

년제 대학 보다는 다소 높은 휴학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제 사정이 4년제 대학의 학생들 보다 좀 더 어렵다고 추측할 수도 있으나,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정서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 4년제 대학의 진학 준비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휴학한 학생들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7)</sup>

### 2. 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대학을 졸업한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시대에 돌입했다. 경제 불황에다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고용관행이 확산되면서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대졸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신문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취업의 어려움을 보도하고 있다.<sup>8)</sup>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은 2005년 56.7%에서 지난해 2008년 56.1%로 떨어진 반면, 비정규직 취업률은 2005년 15.7%에서 지난해엔 18.8%로 올라갔고, 이 같은 추세가 올해 들어 급속히 가속화됐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대졸자 과잉공급으로 개인적·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대기업의 일자리는 정체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일자

<표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 수 변동 현황<sup>9)</sup>

(단위:N,%)

연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재적 학생수	재학생수	휴학생수	휴학생 비율(%)	재적 학생수	재학생수	휴학생수	휴학생 비율(%)
1999	1,767,434	1,229,484	537,950	30.4	859,547	575,030	284,517	33.1
2004	2,049,019	1,407,482	641,537	31.3	897,589	551,805	345,784	38.5
2005	2,073,533	1,405,078	668,455	32.2	853,089	530,149	322,940	37.9
2006	2,094,752	1,427,243	667,509	31.9	817,994	527,614	290,380	35.5
2007	2,115,200	1,449,892	665,308	31.5	795,519	519,698	275,821	34.7
2008	2,129,429	1,456,765	672,664	31.6	771,854	503,397	268,457	34.9

\* 모든 통계자료에서 4년제 대학은 교육대학교와 산업대학을 포함한 자료이며,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은 제외하였다.

리는 증가하고 있으나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생은 학력중심의 채용 및 승진체제와 근로자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제공 부족, 산업체와 협력이 부족한 직업교육 등으로 미취업이 증가되고 있다.<sup>9)</sup>

### 3. 대학생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연구동향

김수연<sup>10)</sup>이 2년제 및 4년제 대학 재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해서 완성한 집단과 휴학과 중퇴를 경험한 집단을 표집하여 학업지속과 휴학·중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성, 연령, 거주지와 학교기관 소재지의 일치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김수연<sup>11)</sup>이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유지와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특성 및 프로그램을 알아 보기 위하여 대학생의 특성과 학생유지, 대학의 학생지원 프로그램, 학생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특성 분석한 결과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은 학생의 개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문제로 간주되며, 학문적·사회적 경험과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학생들의 학업지속 여부는 학생지원프로그램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중도탈락 후의 대책마련 보다는 ‘잠재적인 중도탈락생’을 초기에 발견하여 개인적·가정적·사회적 환경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 4. 국내 패션관련학과 교육과정 · 교수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동향

김효은<sup>12)</sup>은 패션유통업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패션디자인과의 패션유통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여 ‘산업체에서 선호하는 교과목과 교수방법개선, 입학희망 여부, 희망자격증, 희망직업직종’ 등을 제시하였다.

나수임·권혜숙·이정순<sup>13)</sup>이 4년제 대학의 패션관련학과 62개 대학 65개 전공을 선정하여 의류학과군·패션디자인학과군·패션산업학과군으로 나누고 교과목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우리나라 패션관련학과의 교육목적에 사용된 핵심용어의 공통점과 패션관련학과의 명칭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 패

션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은 아직도 추구하는 교육목표에 맞게 확실하게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과 학생들로부터 취업과 교육과정이 연계성에 대해 높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대용<sup>14)</sup>은 대학(교)과 학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부산 패션디자인교육의 현황과 교육만족도 등을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실무지향적인 교육과정의 개설과 강화가 필요하고, 패션디자인 교육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요인으로 즐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하며, 실무경험이 있는 강사를 고용하여 실무중심수업을 해야겠다’고 하였다.

김효은<sup>15)</sup>은 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중요전공과목, 패션관련 전공심화교육, 패션관련 전공분야 취업희망여부 및 분야, 고교연계교육의 필요성을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선호과목은 창작의상, 복식소재, 복식의장학, 염색공예, 디스플레이, 패션과 광고, 한국복식사, 산업체 현장견학 등이었고, 희망분야는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패턴메이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희망분야는 디스플레이어, 패션코디네이터, 패션디자이너 등의 순이다’고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2009년 3월에서 9월 중순까지 예비조사를 거쳐서 2009년 9월 중순에서 10월까지 대구·경북·충청지역에 있는 패션관련 학과 재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통계처리에 유효한 323명에 대해서 통계처리 하였다. 무응답은 통계처리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표 2>와 같다.

### 2. 조사방법 및 내용

#### 1)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

조사방법은 선행된 관련 교과목선호도 및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를 근거<sup>16)17)18)</sup>로, 7차에 걸쳐 예비조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단위:N,%)

구분		중도탈락 가능성				전체	
		있다		없다			
		빈도	백분률	빈도	백분률	빈도	백분률
성별	여자	59	72.0%	195	80.9%	254	78.6%
	남자	23	28.0%	46	19.1%	69	21.4%
연령	10대	54	65.9%	113	46.9%	167	51.7%
	20대	27	32.9%	108	44.8%	135	41.8%
	30대 이상	1	1.2%	20	8.3%	21	6.5%
출신 지역	서울 및 경기도	4	5.1%	15	6.5%	19	6.1%
	광역시(대도시)	41	51.9%	121	52.4%	162	52.3%
	중소도시	25	31.6%	73	31.6%	98	31.6%
	군,읍	9	11.4%	22	9.5%	31	10.0%
출신 고교	인문계고교/종합고교	37	45.7%	123	52.1%	160	50.5%
	공업계고교	12	14.8%	25	10.6%	37	11.7%
	상업계고교	17	21.0%	54	22.9%	71	22.4%
	농업계고교	1	1.2%	2	0.8%	3	0.9%
	기타(검정고시)	14	17.3%	32	13.6%	46	14.5%

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양해를 구해서 면접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를 기초로 예비설문조사내용을 구성하여 소수의 인원에게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연구자가 설문지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조 연구원 1명과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였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였으며 설문지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자발적으로

설문지에 응하였고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문항별 설명을 첨가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목표설정과 자기 계발을 측정하기 위해 박동건·최대정<sup>19)</sup>이 개발한 창업자 역량평가 측정도구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에서 측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p>1) 중도탈락 가능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중도탈락 가능성</li> <li>②중도탈락의 이유</li> <li>③학교에 출석하고 싶지 않는 이유</li> <li>④결석방지 방안</li> </ul> <p>(2)목표설정과 자기 계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목표설정 요인분석</li> <li>②자기계발 요인분석</li> <li>③중도탈락 가능성과 목표설정과의 관계</li> <li>④중도탈락 가능성과 자기계발과의 관계</li> </ul> <p>(3)입학동기와 학과에 대한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입학동기</li> <li>②현재의 학과 만족도</li> </ul> <p>(4)패션산업과 취업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패션산업의 전망</li> <li>②졸업 후 취업전망</li> </ul>	<p>(5)수업방법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바람직한 패션교육 방향</li> <li>②학교교육의 문제점</li> <li>③교수방법의 개선점</li> <li>④학습흥미유발 수업방법</li> <li>⑤희망 교수방법</li> </ul> <p>(6)통합식 수업 및 전공심화 희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통합식 수업 희망여부</li> <li>②전공심화 희망여부</li> <li>③전공심화 교육방법</li> </ul> <p>(7)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 희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 희망여부</li> <li>②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 교육방법</li> </ul> <p>(8)희망 교수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희망 교수진</li> </ul>
--	--

###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각 항목별 응답자의 응답형태를 백분율로 정리하였다.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간에 항목별 반응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chi^2$ 검증을 하였다. 응답자의 목표설정과 자기 계발 정도는 탈락 여부를 기준으로 평균차를 t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s 13.00이었다. 일부 자유 응답형 질문은 연구자가 유사한 항목으로 묶은 후 분류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중도탈락 가능사항

#### 1) 중도탈락 가능성

응시자를 대상으로 중도탈락 가능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과 같이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4.6%(241명)로 나타났으며 '있다'는 응답자들은 25.4%(82명)로 나타났다.

<표 3> 중도탈락 가능 여부

(단위:N,%)

중도탈락 가능성	빈도	백분률
있다	82	25.4%
없다	241	74.6%
전체	323	100.0%

#### 2) 중도탈락의 이유

중도탈락을 해야 하는 이유의 응답결과는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군 입대 하기 위해' (28.4%), '가정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21.0%),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13.6%), '기타' (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학교에 출석하고 싶지 않는 이유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에 출석하고 싶지 않는 이유의 응답결과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 (38.7%), '학교까지 교통이 불편해서' (15.4%), '수업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출석하고 싶지 않는 이유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  $\chi^2(5)=34.98$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에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학생은 44.1%(93명)가 응답한 반면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24.2%(20명)가 응답하였다. '학교까지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에는 각각 17.5%(37명)와 9.9%(8명)가 응답하였다. '수업을 이해하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은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의 22.2%(18명)가 응답한 반면, 중도탈락 가능성이 낮은 응답자는 11.8%(25명) 정도 응답하였다. '전공에 대한 관심저하' 역시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는 18.5%(15명)가 응답을 하였지만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응답자는 6.6%(14명)만이 응답하였다. 특히 '학교를 다닐 필요성을 못 느

<표 4> 중도탈락 이유

(단위:N,%)

	빈도	백분률
군 입대 하기 위해	23	28.4%
가정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직장생활을 위해서	17	21.0%
건강이 좋지 않아서	2	2.5%
다른 대학 재·편입학준비 위해	9	11.1%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11	13.6%
기타	19	23.5%
합계	81	100.0%

꺼서'에는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가 12.3%(10명)인데 비하여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응답자는 1.9%(4명)에 불과 하였다.

4) 결석방지 방안

결석방지 방안의 응답결과에서 나타난 학생들이 제안한 결석방지 방법은 '수업이 흥미롭도록 해야 한다' (53.1%), '과제를 줄여 주어야 한다' (14.4%), '교수나 강사가 출석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석방지 방안에서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  $\chi^2(5)=0.957, p=.966$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목표설정과 자기계발

응답자의 목표설정과 자기계발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은 <표 5>, <표 6>과 같이 각각 7개와 8개이다. 이들 문항에 대하여 박동간·최대정<sup>20)</sup>은 단일한 차원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항의 내용상 단일한 차원으로 묶기에는 다른 능력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목표설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항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항목(2번, 4번, 6번)들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1번, 3번, 5번, 7번)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자기계발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역시 단순히 자기계발을 할 것이라는 문항(1번, 4번, 5번, 6번, 7번, 8번)과 시간과 돈을 들여 자기계발을 하겠다는 문항(2번, 3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문항들이 실제로 두 개로 묶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출할 요인을 2개로 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1) 목표설정 요인분석

목표설정을 측정하기 위한 7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요인 1에 해당하는 문항은 '나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편이다', '나 자신의 일을 위해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 한다', '나는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목표설정을 한다'와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요인이다. 요인 2에 해당하는 문항은 '나는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다'와 같이 '일반적 목표 설정'에 대한 요인이다.

2) 자기계발 요인분석

응답자의 자기계발 정도 8개의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1에 해당하는 항목은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의 관심분야와 관련하여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나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항상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싶다', '전공과 관련하여 더 공부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배우는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즐겁다' 등과 같이 '자기계발 희망'과 관련된 문항이다. 그러나 요인2와 관련된 문항은 '요즈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낸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하여 돈을 아끼지 않는다' 등으로 이는 '적극적 자기계발'과 관련된 문항이다.

<표 5>목표설정 항목의 요인 분석

	요인1	요인2
3. 나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b>0.802</b>	0.137
5. 나 자신의 일을 위해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b>0.768</b>	0.285
7. 나는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한다	<b>0.766</b>	0.092
1. 현재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서 목표설정을 한다.	<b>0.659</b>	0.342
4.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없다	0.032	<b>0.879</b>
2. 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다	0.439	<b>0.735</b>
6. 나는 내 인생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다	0.603	<b>0.608</b>

<표 6> 자기계발 항목의 요인 분석

	요인1	요인2
6.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b>0.806</b>	0.116
8. 나의 관심분야와 관련해서 새로운 것을 해 보고 싶다	<b>0.793</b>	0.110
7. 나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b>0.746</b>	0.282
5. 항상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다	<b>0.745</b>	0.250
1. 전공과 관련해서 더 공부할 계획이 있다	<b>0.608</b>	0.267
4. 무언가를 배우는 모임을 참가하는 것이 즐겁다	<b>0.560</b>	0.499
2. 요즈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낸다	0.144	<b>0.831</b>
3.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다	0.230	<b>0.815</b>

<표 7> 중도탈락 가능성에 따른 목표설정 정도의 차이

(단위:N,%)

	중도탈락 가능성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있다	82	3.21	0.65	319	-6.41	.000
	없다	239	3.72	0.63			
일반적 목표설정	있다	82	3.42	0.82	319	-3.70	.000
	없다	239	3.78	0.75			

<표 8> 중도탈락 가능성에 따른 자기계발 정도의 차이

(단위:N,%)

	중도탈락 가능성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자기계발 희망	있다	82	3.58	0.68	319	-5.69	.000
	없다	239	4.01	0.55			
적극적 자기계발	있다	82	3.05	0.78	319	-2.09	.038
	없다	239	3.27	0.81			

3) 중도탈락 가능성과 목표설정과의 관계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나누어진 세부적 목표설정항목이 중도탈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균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과 같이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일반적 목표설정’ 모두에서 중도탈락 가능성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목표설정을 위한 노력은  $t(319)=-6.41$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일반적 목표설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19)=-3.70$ ,  $p<.001$ ). 중

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일반적 목표설정 모두 더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4) 중도탈락 가능성과 자기계발과의 관계

중도탈락 가능성에 따라 자기계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자기계발 희망’은 중도탈락 가능성의 유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19)=-5.69$ ,  $p<.001$ ). ‘적극적 자기계발’ 역시  $t(319)=-2.09$ 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자기계발 희망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기계발에서도 그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 입학동기와 학과에 대한 만족도

#### 1) 입학동기

입학동기는 '나와 적성에 맞아서' (84.2%), '부모님 등 주위사람들의 권유로' (3.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도탈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입학동기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  $\chi^2(6)=18.722$ 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었다. 세부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라는 항목에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는 70.7%(58명)인 반면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응답자는 88.8%(213명)였다. '부모님 등 주위사람의 권유로'라는 응답에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7.3%(6명)가 응답하여 2.5%(6명)만 응답한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집단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 '관련 직업이 유망해 보여', '취직에 유리할 것 같아서', '수능성적을 고려하여' 그리고 '진학(편입)에 유리할 것 같아서' 역시,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더 높았다. 이는 입학동기와 중도탈락 가능성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학과 선택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이유 때문에 학과를 선택하면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현재의 학과 만족도

현재의 응답자가 느끼는 학과 만족도는 '보통이다' (44.4%), '만족한다' (23.6%), '불만이다'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학과의 만족도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  $\chi^2(4)=43.493$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었다.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보통이다' (50.0%), '불만이다' (35.4

%), '만족한다'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보통이다' (42.5%), '만족한다' (28.3%), '매우 만족한다'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4. 패션산업과 취업전망

#### 1) 패션산업의 전망

패션산업의 전망은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38.0%), '희망적이다' (37.1%), '매우 희망적이다'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패션산업의 전망을 희망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중도탈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패션산업의 전망평가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  $\chi^2(4)=20.443$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패션산업의 전망은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34.6%), '희망적이다' (32.1%), '희망적이지 못하다'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학생의 패션산업의 전망은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39.2%), '희망적이다' (38.8%), '매우 희망적이다' (13.8%) 등의 순으로 전망이 밝게 나타났다.

#### 2) 졸업 후 취업전망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전망은 '보통이다' (55.0%), '어둡다' (21.3%), '밝다'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21.3%(68명)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23.8%(76명)이었다.

중도탈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패션산업의 전망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  $\chi^2(4)=31.931$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값을 얻었다.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전망은 '보통이다' (47.5%), '어둡다' (41.3%), '밝다'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이 보는 졸업 후 취업전망은 '보통이다' (57.5%), '밝다' (20.8%), '어둡다'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보다 긍정적이었다.

## 5. 수업방법개선

### 1) 바람직한 패션교육 방향

패션관련 학과의 바람직한 패션교육 방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31.0%), ‘패션디자인과 졸업생이라면 알아야 할 지식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 (19.4%), ‘해당 분야의 업무에 대한 전체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람직한 패션교육방향은 중도탈락 가능성에 따라 응답 형태의 차이가 없었다( $\chi^2(5)=2.562, p=767$ ).

### 2) 학교교육의 문제점

현재 학교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 (30.5%), ‘깊이가 없는 전공교육’ (26.9%),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18.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기타’ (17.5%)는 ‘자기 자신과 크게 도움 안되는 수업을 들으며 학점을 따서 졸업을 해야 한다는 점’, ‘수준별 교육이 없다’, ‘잘하는 사람은 무한대로 뒤편치는 학생을 기다릴 뿐이다’ ‘자격증취업실무 등 정확한 목표 부재’와 같은 것이 있었다.

중도탈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학교교육의 문제점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  $\chi^2(4)=11.458$ 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 (42.0%), ‘깊이가 없는 전공교육’ (27.2%),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깊이가 없는 전공교육’ (26.9%),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 (26.4%),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교수방법의 개선점

교수방법 중 개선할 점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과제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26.6%), ‘학생의 이해정도 보다 진도만 맞추려고 한다’ (25.0%), ‘개

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24.4%)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중도탈락 가능성에 따른 교수방법의 개선점은 차이가 없었다( $\chi^2(4)=5.813, p=.214$ ).

김효은<sup>21)</sup>의 연구 결과에서도, “‘학생의 질적인 수준향상보다 진도계획에 급급하다’ (39.7%), ‘과제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18.1%), ‘학생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면 한다’ (17.2%), ‘자세한 설명이 없이 무조건 시킨다’ (12.3%)”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수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 4) 학습흥미유발 수업방법

학습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방법은 ‘학생 수준별·차별화수업으로 재미있는 수업’ (31.9%), ‘자격증 취득 관련과목 연계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수업’ (23.1%), ‘기업체 CEO 특강, 모교 선배 등이 강의하여 현장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수업’ (18.4%),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을 위한 현장실습’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교수방법의 개선점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6)=9.051.612, p=.171$ ).

### 5) 희망 교수방법

학생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교수 강의법은 ‘수준별·차별화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 (58.4%), ‘모두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19.6%), ‘과제의 양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한다’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교수방법의 응답반응이 중도탈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4)=4.257, p=.372$ ).

## 6. 통합식 수업 및 전공심화 희망사항

### 1) 통합식 수업 희망여부

통합식 수업 희망여부는 ‘희망한다’ (51.1%), ‘희

망하지 않는다' (3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통합식 수업희망여부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2)=5.142, p=.076$ ).

2) 전공심화 희망여부

전공심화교육의 희망여부는 '희망한다' (78.9%), '희망하지 않는다'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전공심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도탈락 가능성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i^2(2)=.475, p=.788$ ).

3) 전공심화 교육방법

어떤 방법을 통하여 전공심화교육을 희망하는지를 응답한 결과는 '전공선택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어야' (51.7%), '전공기초와 심화전공의 비율이 적절히 맞아야' (30.0%), '패션관련 실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만 다루었으면'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가능성에 따른 전공심화 교육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3)=1.612, p=.675$ ).

7.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 희망사항

1)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 희망여부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 수강희망여부는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희망한다' (70.8%), '모르겠다' (20.4%), '희망하지 않는다' (7.2%)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현장 프로젝트교육에 대한 희망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도탈락 가능성에 따라서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 희망여부의 정도는  $\chi^2(3)=9.989, p<.05$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도탈락 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 원하는 응답자는 58.8%(47명)가 응답한 반면, 중도탈락 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74.9%(179명)가 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중도탈락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2.5%(26명), 중도탈락 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16.3%(39명)로 나타났다. 이는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없는 응답자가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 교육방법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한 교육방안은 <표 10>과 같다. 1안은 기존의 교육방법이고 2안은 기존의 교육방법에 2학년에서 전공심화교육과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을, 3안은 1학년에서 전공기초교육 외에 진로 및 목표설정을 위한 수업을 실시하고 2학년에 각 분야별 전공심화교육과 현장실무중심교육 그리고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표 9>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 희망여부

(단위:N,%)

	중도탈락 가능성				전체	
	있다		없다			
	빈도	백분률	빈도	백분률	빈도	백분률
원한다	47	58.8%	179	74.9%	226	70.8%
원하지않는다	6	7.5%	17	7.1%	23	7.2%
모르겠다	26	32.5%	39	16.3%	65	20.4%
기타	1	1.3%	4	1.7%	5	1.6%
전체	80	100.0%	239	100.0%	319	100.0%

$\chi^2(3)=9.989, p<.05$

<표 10> 전공심화교육 안

안	학년	학기	교육내용
1	1	1	전공기초교육
		2	
	2	1	전공교육
		2	
2	1	1	전공기초교육
		2	
	2	1	각 분야별 전공심화교육(전공선택과목 확대)
		2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
3	1	1	진로 및 목표설정을 위한 수업 및 전공기초교육
		2	
	2	1	각 분야별 전공심화교육(전공선택과목 확대) 및 관련 분야 현장실무중심교육
		2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

응답자가 선호하는 교육과정은 3안이 66.7%(214명)로 가장 많았고 2안은 23.7%(76명)가 선택을 하였으며 1안을 선호하는 응답자도 8.7%(28명)였다. 중도탈락 가능성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과정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3)=2.129, p=.546$ ).

나수임·권혜숙·이정순<sup>22)</sup>의 연구결과에서도, “국내 패션관련학과의 전공교과과정은 아직도 추구하는 교육목표에 맞게 확실하게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과 학생들로부터 취업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해 높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창조적 교과과정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 8. 희망 교수진

#### 1) 희망 교수진

희망 교수진은 ‘현장실무가 뛰어난 교수’ (85.2%), ‘기타’ (11.4%) 그리고 ‘이론이 뛰어난 교수’ (3.5%)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이 나타났다.

중도탈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희망 교수진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한 결과,  $\chi^2(2)=14.164, p<.001$ 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현장실무가 뛰어난 교수’ (87.3%), ‘이론이 뛰어난 교수’ (8.9%), ‘기타’ (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학생은 ‘현장실무가 뛰어난 교수’ (84.5%), ‘기타’ (13.9%) ‘이론이 뛰어난 교수’ (1.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는 ‘현장실무가 뛰어나면서 이론을 겸비한 교수’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대구·경북·충청지역에 있는 패션관련 학과 재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현장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조사내용은 중도탈락 가능사항, 목표설정과 자기계발, 입학동기와 학과에 대한 만족도, 패션산업과 취업전망, 수업방법개선, 통합식 수업 및 전공심화 희망사항,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 희망사항, 희망 교수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가 상당 비율(25.4%)이며 중도탈락을 하는 이유도 ‘군 입대’, ‘가정의 경제사정’,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둘째, 출석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거나 혹은 ‘학교까지 교통이 불편하다’는 등의 의지부족의 사유가 많았으며 결석방지

대책으로는 ‘수업이 흥미롭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석이 많아지면 중도탈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목표설정 정도와 자기계발 정도에서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목표설정과 자기계발 모두에서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목표설정 정도와 자기계발 정도는 중도탈락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변수라 판단된다.

넷째, 입학동기에서는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적성보다는 취업과 주위 사람의 권유와 외부적인 요인으로 진학을 결심한 정도가 높았다. 현재 학과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학과에 더욱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들이 본 패션산업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졸업 후 취업전망은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탈락 가능성이 없는 응답자만 중심으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다. 졸업 후 진로계획에서는 ‘전공 관련 분야의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과 ‘전공과 관련 있는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여섯째, 수업방법개선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패션교육의 방안으로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학교 교육에서의 문제점으로 ‘강의가 어렵고 전공교육에 깊이가 없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교수 방법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도보다는 학생의 이해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지적하고 있다. 수업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개인의 능력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장에 대하여 잘 아는 분들이 강의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곱째, 통합식 수업과 전공심화학습 그리고 과제 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에 대하여 다수의 응답자가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전공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전공과목이 개설되었으면’하는 의

견이 많았다.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에 대해서는 ‘1학년에 전공기초와 진로와 목표설정을 위한 교육을 한 후 2학년에 전공심화교육과 현장중심교육 그리고 과제수행형 현장프로젝트교육이 실시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었다.

여덟째, 희망하는 교수진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수의 응답자가 ‘현장실무능력이 뛰어난 교수’를 선택하고 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한다.

### 1) 교육프로그램 개선

첫째, 대학과 학과목표에 맞추어 1학년 1학기에는 전공 기초과목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가치관의 명료화와 목표의식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양·전공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전공분야 현장견학, 기업체 CEO 특강, 모교선배 멘토링제를 활성화시킨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입학 직후부터 미래 진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거시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개혁해 나갈 수 있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친다.

1학년 1학기·2학기에는 전공기초를 하고 2학년 1학기부터는 학생 진로분야에 맞추어, 학생이 수강하고 싶은 전공과목을 수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공선택과목의 수를 확대시킨다.

2학년 1학기에는 일주일에 1일 정도 학생의 적성과 관심분야에 맞추어 산업체와 연계된 맞춤형 과제 수행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2학년 2학기부터는 인턴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취업을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둘째,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교수 각자의 관심 학문영역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수준과 현실에 맞는 산업체 맞춤형 수업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교수의 역할과 수업방법 개선

첫째, 기초 학습능력과 목표의식이 부족하고 의욕이 없는 일부 학생들은 무리한 과제와 어려운 수업 내용 및 빠른 수업진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도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과목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가 쉽도록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진로방향과 관심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단계적인 심화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수 각 개인별 전공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많은 부담을 주는 수업방법은 탈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수는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수준별·개인별 맞춤수업뿐만 아니라 친밀한 학우 끼리 구성된 팀별 수업을 진행하여 개별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더욱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각 전공별로 창의적 교수방법을 개발해야겠다.

셋째, 교수는 대학의 교육목표에 맞추어 산업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무기술기능을 익혀서 학생들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치 '바로바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실무기술과 기능 외에 업무와 관련된 최신의 정보 역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능한 한 외부 강사는 이론적인 부분 보다는 실무능력을 갖춘 현장형 인물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윤양배(2009), "취업교육을 위한 지도자 역량강화세미나(2차)-Digital 시대에서 우리의 진로-", *계명문화대학(대구) 세미나보고서*, p. 7.
- 2) "대학알리미", (2009, 9. 30), *한국교육개발원 정보공시 자료검색일* 2009, 10, 1, 자료출처 <http://www.academyinfo.go.kr/subjectSearchAction.do>
- 3) "교육통계서비스", (2009, 9, 1), *한국교육개발원 정보공시 자료검색일* 2009, 9, 12, 자료출처 <http://www.std.kedi.re.kr>.
- 4) 김수연(2006),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 탈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3(4), pp. 33-62.
- 5) 김수연(2007), "학생유지와 영향을 미치는 대학

의 특성 분석", *진로교육연구*, 20(1), pp. 111-141.

- 6) 김수연(2006), op.cit., pp. 33-62.
- 7) 안광호 외(2009), "학생 중도탈락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대처방안", *계명문화대학(대구) 연구 결과보고서*, p. 6.
- 8) "대졸자 절반도 '정규직 취업 못한다'", *조선일보*, 2009, 9, 21, p. A1.
- 9) 이승근(2009), "전문대학 교육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계명문화대학(대구) 2009년도 하계 교수 연찬회 워크숍 발표자료*, p. 8.
- 10) 김수연(2006), op.cit., pp. 33-62.
- 11) 김수연(2007), op.cit., p. 138.
- 12) 김효은(2006), "패션유통업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패션디자인과의 패션유통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방안-교과목 선호도와 교수방법에 대하여-", *패션비즈니스*, 10(5), pp. 74-92.
- 13) 나수임·권혜숙·이정순(2008), "패션관련학과 의 전공교과과정 현황분석", *패션비즈니스*, 12(5), pp. 54-66.
- 14) 박태용(2005), "부산패션디자인 교육의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5), pp. 585-594.
- 15) 김효은(1999), "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개선에 관한 연구", *복식*, 46, pp. 89-107.
- 16) 김효은(2006), op.cit., pp. 79-89.
- 17) 김효은(1999), op.cit., pp. 94-105.
- 18) 김효은·구정모(2003), "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의 패션유통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 의상디자인학회지*, 5(1), pp. 97-107.
- 19) 박동건·최대정(2003), "창업자의 역량평가 도 구개발 및 타당도 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2), pp. 61-91.
- 20) Ibid., pp. 69-82.
- 21) 김효은(1999), op.cit., p. 104.
- 22) 나수임·권혜숙·이정순, op.cit., p. 65.

접수일(2009년 10월 12일)  
수정일(1차 : 2009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23일)